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Vol. 07. No. 03. pp. 21~40. September, 2021

p-ISSN 2635-9111, e-ISSN 2765-4117
http://dx.doi.org/10.36697/skya.2021.7.3.21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eer mentoring in college students

Jung, Jung Ae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Background & Purpose: This study is a field study conducted focusing on peer mentoring experiences to help colleague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ollege life. The purpose is to provide data for revitalizing the experience of peer mentoring in college students.

Methodology: This study is temporality, sociality, place on the according to the narrative inquiry procedure suggested by Clandinin & Connelly (2000). the field text was analyzed by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Findings/Conclusions: First, as they began to experience peer mentoring, they recognized that previous experiences had an influence on their current cognitive-emotional behavior. Second, the psychological state that I had when I first started experiencing peer mentoring developed into interest in myself and my peers over time. Third, he gained confidence in what role he would play in the future.

Implications: As a college student, it will be possible to discuss how faithful and free one can be to oneself and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an open mind toward the world in the future, and it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activating peer mentors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College student. Peer mentoring experience. Narrative Exploration

Corresponding Author: Jung, Jung Ae
Student counceling center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4, Beomil-ro 57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3759-504X
Email: bella@cku.ac.kr

Received: August 31, 2021 **Revised**: September 28, 2021 **Accepted**: September 28, 2021 **Publication**: September 30, 2021

www.kci.go.kr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Vol. 07. No. 03. pp. 21~40. September, 2021

p-ISSN 2635-9111, e-ISSN 2765-4117
http://dx.doi.org/10.36697/skya.2021.7.3.21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정정애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수행된 현장 연구로서 또래멘토 경험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대학생 또래멘토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안하는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시간성(temporality). 인간관계(sociality). 맥락(place)에 입각하여 현장텍스트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결론: 첫째,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경험들이 현재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심리적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또래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자신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사점: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인드의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 논의 될 수 있고 대학생의 또래멘토 활성화에 중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될 것이다.

주요어: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 경험. 내러티브 탐구

교신저자: 정정애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ORCID: https://orcid.org/0000-0002-3759-504X
Email: bella@cku.ac.kr

투고일: 2021. 08. 31. **심사일**: 2021. 09. 28. **게재확정일**: 2021. 09. 28. **발행일**: 2021. 09. 30.

www.kci.go.kr

Ⅰ. 서 론

대학생의 시기는 인생의 설계와 미래의 직업 선택을 촉진시키는 도약의 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의 심리적 독립은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진로인지와 적성면에서 불일치 할 경우 전공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고 전반적인 대학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경험 할 수 없었던 자율적인 대학생활이 오히려 무기력해 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며 우울해 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대2병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휴학이나 전과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실제 대2병을 경험한 경우가 66% [1] (이화여대 시사 웹진동아리 dew)에 해당하고 2015년 학적 변동 대학생 수는 자퇴생 3만 8,523명, 전과생 1만 2179명, 휴학생 46만 7,570명(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 (2017.4.2. 466회. sbs 스페셜 대2병, 학교에 묻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이고 현실적 고민은 학교부적응의 유발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한 대학에서 실시한 재학생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756명의 응답자중'선후배와의 친밀한 관계'(179명, 2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이전 학년도(2017년-2018년)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3]. 이후 2021년 초에 조사한 결과도 어려운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대상에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4].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래멘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채유경 [5]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선 자신을 탐색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집단상담 형식을 통한 또래멘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래멘토 프로그램은 다른 연구에서는 보여 준 대학의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할 상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혼자 고민하거나, 어머니,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이러한 보고는 학교생활과 학교적응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이 학과 교수와 전문상담사 이전에 친구와 동료들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를 중심으로 2017년 2학기부터 교내에 대학생 또래상담을 중심활동으로 하는 또래멘토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또래멘토 동아리회원들은 또래멘토와 관련된 상담이론과 실제 교육 및 집단상담 경험 등을 통하여 또래 멘토로 양성되었고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다. 다만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 또래상담 멘토 활동이 대학생으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본 연구의 촉진제가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활동이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에 비해 현저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노성덕 [7]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980년에서 2014년 1월

www.kci.go.kr

사이의 연구 총 219편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52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48편, 초등학생 49편, 초・중・고가 혼재되어 있는 연구가 32편이었다. 2000년 이후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은 프로그램개발과 프그램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8,5,6].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학교적응과 학과적응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또래멘토의 양성과 지도는 시급하고 매우 필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동료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학에서 또래멘토 상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래멘토 상담동아리 회원은 매학기 모집이 되었고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양성교육, 집단상담, 또래멘토 상담활동, 또래멘토 상담일지 작성, 수퍼비전 등을 경험 하였다. 이 중 몇 학생은 2년이상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성교육과 또래멘토 상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또래멘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자는 “무엇 때문에 이 학생들은 2년 이상 또래멘토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또래멘토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연구동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으로 대학생 또래멘토 경험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또래멘토 경험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학생 또래멘토 상담활동 활성화에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내러티브 탐구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story telling) 이를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retelling)을 통하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living)에 대한 것으로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한다 [9]. 내러티브 탐구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아되고 형성되고 발전되고 구성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돌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여러 가지 세계관이 어떤 근거에 두고 있으며,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10]. 또한 시간성(temporality)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관계(sociality)와 맥락(place)이 함께 경험된다 [11]. 시간성(temporality)에 따라 또래멘토 상담활동 이전과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따른 개인의 인식변화를 이야기 하였다. 인간관계(sociality)와 맥락(place)은 또래멘토로서 동료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시작과는 달리 오히려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을 두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으로서 또래멘토 활동을 통한 시간성과 사회성 및 맥락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 또래멘토 경험에 대한 심층연구는 대학생 또래상담의 연구가 거의 확인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 또래멘토 활성화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또래멘토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둘째, 대학에서 또래멘토 활동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www.kci.go.kr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

통계청(2017)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걸맞게 후기청소년의 대학진학률 역시 70%에 이르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후기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심리적 혹은 사회적 적응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실제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전문지식 습득, 취업 준비, 독립생활 준비,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업을 이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많은 후기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율적 생활 방식과 취업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료학생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불안, 무기력과 이에 따른 대인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과 또래멘토 활동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또래상담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을 가진 또래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2]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효과성 검증을 위해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상담 또래멘토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예방정책으로 선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개별 학생에 대한 조력활동으로 시작된 또래멘토 활동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서로 돕는 문화' 즉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 유산인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기적이며 개인중심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 시원한 샘물 같은 운동이 바로 또래상담과 또래멘토 활동이다. 또래상담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또래 멘토 활동은 또래상담 활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래상담에 대한 개념은 '또래'와 '상담'이 결합된 용어이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을 말한다 [7]. 또래상담에서 '상담'은 협의의 '심리치료'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13]. 외국의 경우에도 또래상담에서 상담의 의미를 상당히 포괄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14,15]. 즉 또래상담은 상담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비전문가를 활용한 조력활동이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활용하는'도움주기'활동이다 [16,7,17,18]. 특히 Varenhorst는 또래상담은 "대인 간 조력활동을 수행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또래상담자들을 찾아오거나 또는 그들에게 의뢰된 비슷한 연령의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8].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또래멘토 활동 경험은 또래멘토로서 또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활동을 지칭한다.

www.kci.go.kr

2.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의 특징

2015년 3월 서울 용산구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열린'개꿈 콘서트'에서는 입시공부를 위한 강연이 아닌 또래멘토의 다양한 경험 나누며 청소년의'꿈 부재' 해결을 돕는 강연이 있었고 강연자는 성공한 유명인이 아닌 3명의 대학생 '또래 멘토'였다. 이 프로그램은 "또래들이 하는 강연이라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공감대가 생겨서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19]. 국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래상담 대학생 멘토 모집안내문 [20]의 내용에서는 또래상담 대학생 멘토의 활동내용으로 '지역또래상담자 연합회 활동지원 및 참여, 연합회 조별 멘토 활동, 또래상담 대학생 멘토 운영회의,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운영 및 지원, 또래상담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 청소년안전망 참여 및 지원'등이다. 대학생 또래상담과 또래멘토로서 익혀야 하는 교육과 활동 참여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을 계발하고,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대학생 또래멘토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기, 고민 들어주기, 같이 수업듣기 등의 다양한 도움주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지지 인적자원이 되어줄 수 있다.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발달과업 실행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2](청소년상담연구, 20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Privette와 Delawder [21]는 또래상담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에 비해 우선 지출 비용이 저렴하고, 라포형성 및 수평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관계적 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점에 힘입어 실제로 성인, 대학생, 청소년 및 아동 등 다양한 연령 집단 내에서 알콜, 약물, 성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문제영역에 대해 또래상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학업 및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원하고자 West Florida 대학의 심리학부가 또래상담을 실시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내 다양한 학업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신입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또래상담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학 내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 삶의 목적, 자존감, 외로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함께 다뤄주었다. 이처럼 대학 내에서의 또래상담이 갖는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터키, 영국(Eryilmaz, 2017) [23] 등 미국뿐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도 그 효과성에 주목하고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함으로써 또래를 위한 다양한 조력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 또래멘토의 주요 활동은 또래들과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자원으로 삼아 또래들과 심리적인 공간을 함께 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8년 5월 또래멘토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교육, 집단상담, 또래멘토 활동일지, 수퍼비전기록 등의 활동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참여자당 7회-10회의 면담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초의 자료는 10여명의 집단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상담 중 연구참여자의 활동지와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그 이후 또래멘토 활동을 하면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또래멘토 활동일지와 그에 대한 수퍼비전을 실시하면서 또래멘토 활동 경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2020년 3월부터는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면 면접을 병행하였다. 각 면접은 연구동기와 연구방법들을 안내하는 첫 면담으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그동안 또래멘토 집단상담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동기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으로 1-2회기는 또래멘토 동아리 가입이전의 생활내용과 또래멘토 동아리 가입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3-7회기는 또래멘토 활동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7-10회기는 또래멘토 활동의 의미에 대한 면담으로 이어졌다.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면담 중에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내러티브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시간성(temporality)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관계(sociality)와 맥락(place)이 형성됨을 함께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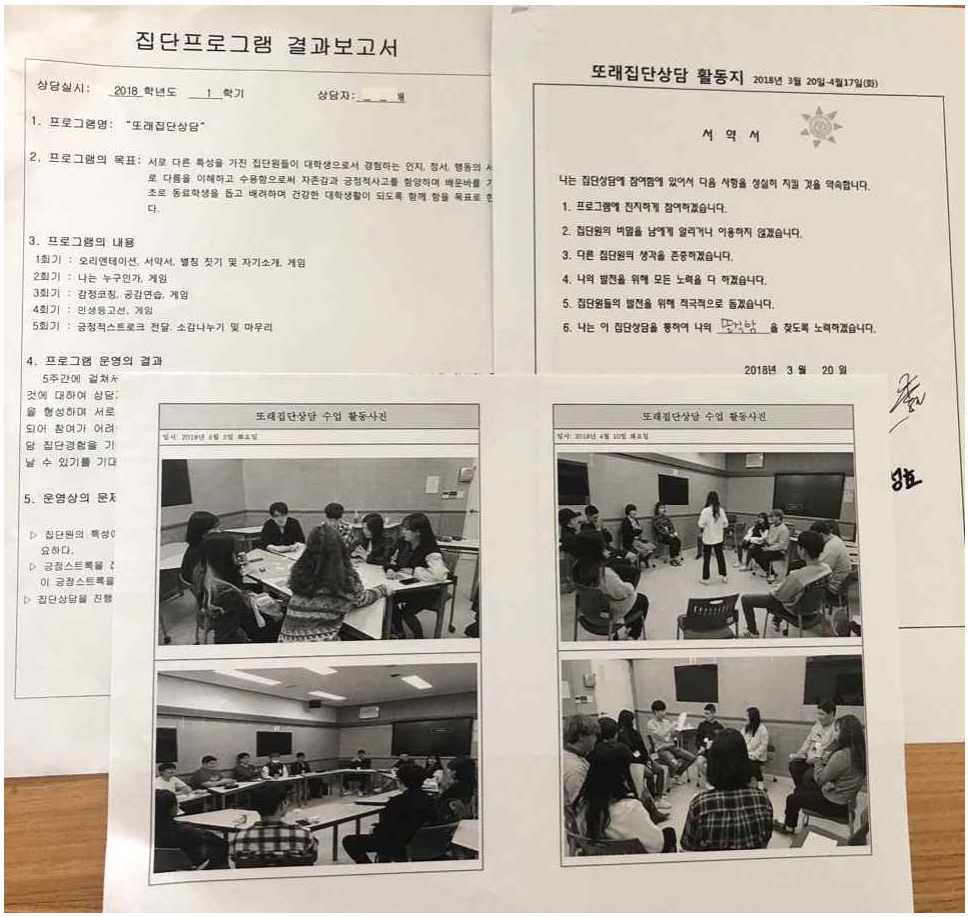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대학생 또래멘토 동아리 회원으로 양성교육 및 특강참여, 집단상담 참여, 또래멘토 활동, 또래멘토 활동일지 작성, 수퍼비전 등을 경험한 학생으로 또래상담동아리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한 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세 학생 모두 2018년 1학기에 또래멘토 동아리 양성과정의 하나인 집단상담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다. 또래멘토 동아리 활동을 1년이상 지속될 즈음 연구자의 연구 동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꺼이 동의를 한 3명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혀 주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내러티브의 서술과 공개에도 기꺼이 동의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표 Ⅲ-1>과 같으며 2018년 1학기에 진행한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를 〔그림 Ⅲ-1〕로 첨부한다.

www.kci.go.kr

〈표 Ⅲ-1〉 연구참여자

참여자	성별	학년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경험(년)	이전 또래상담 활동경험(년)	개인상담경험
A	남	졸업	3	무	유
B	남	4학년	2.6	무	무
C	여	3학년	3	3	무



〔그림 Ⅲ-1〕 또래멘토 역량강화 집단상담 결과보고서

3. 연구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이해하고자 비공식적인 수집을 대표하는 Clandinin과 Connelly 〔9〕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 〔9〕는 “내러

www.kci.go.kr

티브 연구는 살아 있는, 그리고 이야기된 이야기이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또래멘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 수집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3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2년이상 양성교육과 집단상담에 참여했던 활동지. 또래상담 활동, 상담일지 작성, 수퍼비전 등의 경험과 함께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현장텍스트(field texts)로 연구자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하여 면접을 기록하고 녹취하였다. 인터뷰 녹음을 전사하면서 내용을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질문을 추가 인터뷰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자는 경청자 혹은 질문자로서의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며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2년 이상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Clandinin과 Connelly (2000) [9]의 시간성, 사회성, 맥락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성은 경험의 계속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또래상담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기 전, 후의 의미를 시간적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또래상담 활동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일, 보람있었던 일, 기억나는 일, 어렸을 때 경험과 연결되는 것들에 대하여 시간적 맥락에서 탐구하였다. 사회성은 또래상담 경험의 상호작용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또래멘토 활동 경험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장텍스트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한 학생 한 학생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해되는 틀로 '재구성'하였고 재구성된 이야기들은 몇 가지 일반적인 틀로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틀은 수집과 함께 이야기의 주요 요소들(시간, 장소, 구조, 장면)을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인 주관성을 극복하고자 2명의 질적 연구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검토와 수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대학생으로서 또래멘토 활동을 통한 경험과 또래멘토 활동의 의미를 시간성, 사회성, 맥락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의하여 이야기하고 재구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A는 현재 4학년 학생으로 2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하면서 또래멘토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www.kci.go.kr

또래멘토 활동 경험 전: 착하고 조용한 아이

연구참여자 A는 평범한 가정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큰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닐 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병실에서 생활을 하였다.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몸이 긴장되는 것을 알아 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병실에 있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평범한 일상도 남들과는 다르게 병실에서 지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셔서 힘내고자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고 환자들의 도움으로 점차 남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몸이 아픈 기억 보다는 엄마 아빠의 걱정하는 모습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얼른 나아서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의 기억이고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인데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되니... 몸이 좀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할 때가 있어요."

입원 치료 때문에 초등학교에 늦게 입학하여 아는 친구도 없고 낯가림이 있어서 대화를 피했다. 중학교에서는 이름 때문에 자주 놀림을 받아 친구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다. 이후 그 친구들과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진 경험이 있었다. 처음으로 타인에게 화를 낸 것이었는데 그전에는 화를 내면 관계가 안좋게 될까봐 걱정되어 회피하려던 생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를 내고도 친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어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 "중학교 때 이름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좀 당했었는데 그날은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한 친구에게 엄청 화를 냈어요. 오히려 그 친구가 놀랄 정도로요... 평소에 조용하던 성격이고 친구들과 싸운일이 없었거든요. 그 때 화내고 미안해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서로 얘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겠다는 뭐 용기 같은데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어 신문부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누군가를 목적을 갖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고 그것을 기사로 만들면서 기사 교정도 받으며 점차 동아리 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때로는 도움도 받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게 되었다. 그때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은

www.kci.go.kr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대학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일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할 때 내가 제일 재미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은 학과를 생각해보고 살면서 재밌게 했었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자원봉사경험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서 지금의 학과로 전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 물고기에게 필요한 물놀이

연구참여자 A는 또래멘토 활동이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상담을 해 볼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공부와 상담을 해 볼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에 서슴없이 또래멘토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 "처음 또래멘토 동아리에 대해서는 생소한 점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양한 상담교육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의 성격적으로나 전공으로 볼 때 여기 동아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소개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졸업후에 가급적 상담업무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상담을 해 볼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얘기들어주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또래상담자로서 일정 교육 없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비전문성이었다. 또래상담을 하지만 해결방법을 내담자가 직접 찾고 선택하게 해야하는 과정에서 오는 책임감도 있다고 하였다. 힘든 사례는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갑자기 올라오는 수위 높은 케이스가 가끔 있는데 그럴때는 매우 난감할 때가 있다고 하였고 이런 경우 수퍼비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또래멘토 활동에서 좋은 점은 심리적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동료학생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은 기회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학생 신분으로 상담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또래상담활동 경험은 물고기에게 필요한 물놀이 같다고 하였다.

> "또래멘토 활동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여름방학동안에 대학***에 올라왔던 자살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살충동과 함께 동반자살자를 구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정말 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계속 카톡과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 학생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 한 시간이었어요. 저 혼자서 대처하지 않고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또래멘토와 함께 의논하면서 대처할 수 있어서 힘이 되었어요. 그 이후 그렇게 위

www.kci.go.kr

험한 사례는 없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래상담활동 경험은 저에게는 '물고기에게 필요한 물놀이' 같아요."

또래멘토 활동 경험의 의미: 세상을 향한 통로

또래멘토 동아리에서 배운점이 참 많았다. 특강에서 인간심리에 대한 공부를 다양하게 하게 되면서 또래멘토를 할 때 친구를 대하는 마음이 너그러워 지는 것 같았다. 학교축제 때에 또래멘토 회원들과 함께 했던 먹거리 부스. 동아리축제 때 함께 했던 심리검사 프로그램.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양성평등 캠페인. 시네마 치료. 센터홍보)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혼자 공부하고 학교만 다니는게 아니고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대학생활을 폭넓게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신과 같이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에게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은 제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씩 변화시켜왔습니다. 또래멘토를 하면서 듣고 보게 된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틀을 깨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래멘토 활동을 통해 상담을 받은 친구들이 더 나은 길로 고민하면서 견디는 모습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고 제일 보람을 느꼈던 학교생활이었다. 그리고 생각에만 그쳤던 상담에 대한 관심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래멘토 일지를 쓸 때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는데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나 자신과 친구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또래멘토 동아리에서 경험한 활동들이 진로에까지 도움을 주게 되어 나아가게 지금 사례관리사로 일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B는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고 5학기째 또래상담 경험을 하고 있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 전: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

연구참여자 B는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외모를 지녔다.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학생이다. 초등학교시기에도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있

www.kci.go.kr

다. 중학교 시기에는 주변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기억도 여러번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 생각 해 보면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그 친구에게 아주 작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새로운 친구들을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것저것 해보게 되었었는데 그 때 기억으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즐거웠던 것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그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다. 고등학교때 공학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던것도 기억에 남는다. 대학에 복학 후에 동아리 활동을 알아보다가 같이 복학 한 친구들과 또래멘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대학에 와서 나 자신이 참 순진하고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친구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최대한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왔던 어린시절의 기억도 또래멘토 동아리 가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겼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 도움보다는 관심

연구참여자 B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에 가기 전 학교 생활중에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복학 후에 우연히 학과 친구를 통해 또래멘토 동아리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후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직접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궁금증과 신기함이 지원동기였다. 상담을 해주려고 만나기 보다는 친구들이 좋아서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마치 유치원때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좋아서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좋았던 것처럼. 친구들을 도우려는 마음 보다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래멘토 활동에서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친구를 찾게 되면 서로 부담스럽고 친구의 입장에서 마음놓고 고민을 털어놓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았다.

> “궁금증과 신기함으로 시작한 또래멘토 활동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같은 또래로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할 경우가 있었구요. “내가 저 친구입장이라면 나같은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죠. 또래멘토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담자를 찾기 어려운점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담은 많이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내가 애써서 도움받을 친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래멘토로 이어 질 때가 종종 생기면서 편안해 졌어요. 또래멘토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또래 친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

www.kci.go.kr

을 서서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래멘토 활동 경험의 의미: 또래멘토의 자세로

연구참여자 B는 이제 대학생활에서 마지막 한 학년을 남기고 있다. 4학년이면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그만 두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래멘토 회원으로 남아 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담없이 순수하게 듣게 된 것 같다. 그냥 공감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듣는 자세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좋은 얘기 해주려는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이라는.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 할수 있었는 것, 내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 졸업을 하게 되어도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몸에 배여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나의 전공과 또래멘토 활동이 직접적으로 크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래멘토 활동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래멘토 활동경험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전공지식을 떠나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역할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C는 3학년에 재학중이고 1학년 때부터 또래멘토 회원으로 활동중이고 중학생 때 3년간 또래상담자 경험이 있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 전: 소소한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아이

연구참여자 C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두 식구가 한부모 가족으로 생활을 하면서 힘든 기억을 얘기하였다. 중학생때는 상담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냥 내가 진짜 되고 싶은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이 덜 힘들면 자살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한창 사춘기 때 예쁜 학생들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자신의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서 죽어가는 학생들에게 옆에 있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와서 사회복

www.kci.go.kr

지를 전공하게 되었다. 도움을 주는 대상을 청소년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중학생 때 상담사가 꿈이어서 또래멘토 동아리에 들어가 3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다시 또래상담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생 또래상담 때 사과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또래상담자에게 전달하면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편지와 사과를 같이 전달해주는 '애플데이'날 서로 마음을 풀며 선물까지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진로를 고민하며 주변 친구들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친구들의 소소한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또래멘토 활동 경험: 소꿉친구

연구참여자 C가 또래멘토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자신이 힘들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종종 경험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정한 감정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래상담 활동에 흥미을 보였었다. 연구참여자 C가 생각하고, 바라는 또래멘토의 이미지는 '소꿉친구'이다. 누구나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소꿉친구처럼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 둘 나눌 수 있는 것이 또래멘토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누가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또래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 "대학 동아리 중 또래멘토 동아리가 대학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게 감사했죠. 이전에도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사회복지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니 중학생 때 또래상담자로 활동했던 것보다 설렜어요. 그리고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도교수님도 배정된 동아리라서 신뢰가 되었어요.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함께 들으면서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했어요. 우리 동아리원들은 어떻게 하면 고민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풀어내도록 도울 수 있을지 늘 생각했는데 다른 동아리와는 이런 게 차별적인 것 같아요."

또래상담을 하며 좋았던 점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www.kci.go.kr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나와의 차이를 알아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좋았다. 상대와 이야기하며 배우는 것들도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것 같았다. 또래상담을 하며 어려웠던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밖에 상담을 할 때 힘들었던 건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인 것 같다. 개인을 존중하지만, 친구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자신이 친구들이 쉬어갈 수 있고 소꿉놀이처럼 생각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활동경험 얘기를 해주었다.

또래멘토 활동 의미: 쉬어 가는 곳

연구참여자 C는 타인을 많이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수차례 했다고 얘기했다. 또래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상담일지를 쓰면서 또래상담을 해주는 친구에게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투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심정을 말해 주었다. 또래상담 내용을 일지로 쓰면서 귀찮은 점도 있었지만 문서화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상담내용과 일지를 가지고 수퍼비전 받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수퍼비전에서 나의 문제가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짚어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조금 더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조금 더 해야 하고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느낌이 큰데 또래상담 동아리에서는 같이 쉬어가는 곳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곳이라고 느낌을 알려주었다. 또래상담 동아리회원이 아니어도, 동아리 회원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래상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래상담자인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또래상담동아리 회장직을 수행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아직 3학년이라서 또래상담활동은 계속 될 거에요. 앞으로 또래상담동아리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아요. 처음 보는 또래상담자에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은 아직 많이 없지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교육을 받고 검증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믿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지역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고민중에 있었고 그 고민은 또래멘토 활동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또래멘토 활동 경험은

www.kci.go.kr

같은 학생의 신분으로 동료를 돕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내러티브 연구의 3차원방법의 시간성, 사회성, 맥락에 비추어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또래맨토 활동 경험 이전 각각 착하고 조용한 아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 착하고 열심한 아이로 성장하면서 각자 고유한 경험을 하였다. 이런 고유한 경험들이 대학에서 또래멘토 활동 경험을 촉진시키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또래멘토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알아 가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또래멘토 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하여 평범한 자신의 삶을 자원으로 구체화 하였다. 또래맨토 활동경험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에서'물고기에게 필요한 물놀이(연구참여자 A)', '도움보다는 관심(연구참여자 B)', '소꿉친구(연구참여자 C)'로 또래멘토에 대하여 친구로서 그냥 함께 해줌으로써 충분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멘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래멘티와 연결이 안되서 어려울 때는 학과에서나 강의실, 식당 혹은 도서관 등에서 주로 혼자 지내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학과에서 수업시간에 혼자 앉아 있거나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는 방법을 주로 또래멘토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착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열심한 아이들이였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힘들 때 누가 옆에 함께 있으면 좋았던 기억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재미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관심을 갖으면서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또래멘토를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매학기 마다 실시되는 집단상담과 특강, 상담일지 작성과 수퍼비전 등의 기회를 꾸준히 이어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외적경험은 또래멘토 활동을 통하여 만나는 친구들과 계속 연결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경험이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보다는 나의 이해와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자원이었다. 학교에서의 또래멘토 활동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더 갖게 되고 가족들을 살피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의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기분이나 느낌 등도 또래멘토 활동 후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해의 틀이 만들어져 갔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도 사람과 함께 한다는 생각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는 원의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들의 또래맨토에 대한 원의가 자신에 대한 돌봄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관찰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적인 인터뷰가 가능했고 인생등고선이라는 활동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20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들이 어린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 또래멘토 활동에 촉진제가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어려서 착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열심한 아이의 내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또래멘토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고 고백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 (2000)는 [9] 내러티브 연구에서 핵심 주제는 양자가 만남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게 되는 연구자와 피연구자간의 관계에 있다 [24]고 밝혔다.

www.kci.go.kr

둘째, 대학생으로 또래멘토 활동 경험의 의미는'세상을 향한 통로'(연구참여자 A), '또래맨토의 자세로'(연구참여자 B), '쉬어 가는 곳'(연구참여자 C)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또래맨토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삶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함께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또한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쉬어 갈수 있는 그런 공간과 맥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모두가 바쁘고 자신을 돌보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특히 코로나19로 사람을 조심하는 비대면시대에 대학생들의 재학률은 점점 낮아지고 우울감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또래맨토 활동 경험은 더욱 필요하고 또래맨토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되며 또래맨토 양성과 활성화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타인을 이해라는 과정이란 곧 개인이 타인의 생각에 동감하며 동질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사실인 것이다〔25〕.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3명의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멘토 활동 경험에 대한 사전 사후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크기를 10여명으로 하게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논의 부분에서 또래멘토 활동에 대한 연구의 미흡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환경과 가정환경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폭넓은 개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텍스트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집단상담과 또래멘토 활동에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개인상담을 포함하여 개인의 변화를 객과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심도 있는 내면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제언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이화여대 시사 웹진동아리 dew (2015).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 affairs web club dew (2015).
2. 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 sbs 스페셜 대2병, 학교에 묻다 (2017.4.2. 466회). Ahn Min-seok (also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University sophomore of sbs special, ask the school (2017.4.2. 466).
3.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9). 재학생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2019). Current status survey and demand survey of current students.
4.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취업단 (2021). 학생진로 결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신입생 및 재학생 설문조사.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University Job Center Employment Group (2021). A survey of freshmen and current students to determine student career paths and provide employment support.
5. 채유경 (2001). 대학생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25-37.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Chae Yoo-kyung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University Student Peer Counselor Training Program. 33, 25-37.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6. 황재연 (2009). 대학생 또래상담자가 사용할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wang Jae-yeo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s for use by college student peer counselors. Graduate School of Gongju University. Master's thesis).
7. 노성덕 (2014). 학교 또래상담. 서울: 학지사. (Noh Seong-deok (2014). School peer counseling. Seoul: Hakjisa).
8. 김혜숙(2000). 교대학생 또래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연구. 청소년상담연구, 8(1), pp. 100-121. (Hyesook Kim (200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research of educational programs for peer counseling for university students. Youth Counseling Research, 8(1), pp. 100-121).
9. Clandinin, D. J., & Connelly,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Francisco, CA: Jossey-Bass.
10. 나선엽 (2019).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 경험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Rahn-Yeop (2019).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 of docent activity in an art museum. Doctoral dissertation, Kyungin University of Education)
11. 방기연 (2019). 우하한 거짓말: 경력단절 어머니들의 학교운영위원회 경험. 교육치료연구, 11권 3호 pp. 495-516. (Ki-Yeon Bang (2019). A hoax lie: The experiences of mothers with career

www.kci.go.kr

interruptions o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Educational Therapy Research, Vol. 11, No. 3, pp. 495-516).

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2018). Development of a peer counseling program for later adolescent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13.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Bonyong Koo, Hyeyoung Koo, Myungwoo Lee (1994). Peer counseling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Seoul: Plaza for Youth Dialogue).
14. Carr, R. A., & Saunders, G.A.K. (1998); *Peer counseling starter Kit. Victoria: Peer Resource.*
15. Tindall, J. A. (1995). Peer Programs. 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Bristol: Accelerated Development Inc.
16. 노성덕 (2008). 찾아가는 상담. 서울: 학지사. (Noh Seong-deok (2008).on-site counseling. Seoul: Hakjisa).
17.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4). 또래상담. 서울: 학지사. (Lee Sang-hee, Noh Seong-deok, Lee Ji-eun (2004). peer conversation. Seoul: Hakjisa).
18. Varenhorst, B. B (1984). Peer counseling: Past promises,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 716-750). New york: John Wiley & Sons.
19. 경향신문 김향미기자. 2018, 3, 16. 평범한 '또래 멘토' 꿈을 이야기하다. Reporter Hyang-mi Kim of Kyunghyang Shinmun. 2018, 3, 16. Talking about the dream of an ordinary 'peer mentor'
20.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3. 2. 또래상담 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문. Cheona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Development Center. 2010. 3. 2. Peer Counseling Student Mentor Recruitment Guide
21. Privette, G., & Delawder, J. E. (1982). Academic Peer Counseling: Advising With A Personal Touch.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5, 109-114.
22. Aladağ, M. & Tezer, E. (2009). Effects of a peer Helping Training Program on Helping Skills and Self-Growth of Peer Helper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1, 255-269.
23. Eryilmaz, A. (2017). The effectiveness of a peer-helping programme that increases subjective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5(3), 225-237.
24. Pinnegar, S., & Daynes, J. G. (2007). Locating narrative inquiry historically: Thematics in the turn to narrative.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25. 박성희 (2011). 질적 연구방법. p.151. 서울: 원미사. (Park Seong-hee (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151. Seoul: Wonmisa).

www.kci.go.kr